

일부 공무원들의 흡연유형에 관한 고찰

현 경 순 (강북삼성병원)

목 차

I. 서론	2. 금연시도 및 성공여부와 흡연유형
1. 담배의 역사적 배경	3. 흡연요인 관련 유형
2. 흡연의 유해론	IV. 결론 및 제언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참고문헌
II. 연구방법	영문초록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일 흡연량별 흡연유형	

I. 서 론

1. 담배의 역사적 배경

오늘날 우리의 대중적 기호품이면서도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는 담배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産物이다.

담배의 원산지는 인류 최고의 역사인 마야 문명의 발생지인 서인도제도로서 초기에는 담배를 태우는 것이 일종의 종교의식 내지는 질병치료의 주술적 의미로 행하여졌다가 후에 일반사람에게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16세기초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할 즈음에는 흡연을 하는 것이 미대륙에 확산되어 있었고, 이때의 탐험가들이 담배를 유럽에 전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담배의 어원인 tabacco가 원래 마야족이 사용하던 낚연 기구인 tabacos에서 연유한 것이고, 담배의 식물학명인 '니코티아나'는 불란

서에 처음으로 담배를 전파한 포르투갈 주재 불란서 대사였던 니코디우스(Tohannes I. Nicotius)의 이름을 딴 것이며 Nicotine(유독성분)도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 등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해진다.

유럽에서 흡연이 성행해지자 그 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급속히 전파되어 초기에는 금연령 등으로 우여곡절 등을 겪었으나 대중의 기호품으로서 자리잡아져 갔다.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10년(1618년)에 기록이 처음 나타나며 16대 인조 임금 당시 碩學名臣인 이수강의 지봉유설에 담배고, 南靈草가 나타나고 17대 효종왕의 후비 인성왕후의 생부인 신흥부원군 張雄은 담배를 즐겨 피운사람으로 기록되고 전래되고 있다.

그후 담배가 전래되어 20년이 지난 뒤 광해군 2년에 등과한 張雄이 쓴 谿谷漫筆을 보게 되면 흡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1500명에서 1명뿐 밖에 안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

다. 또한 그는 여기에서 담배는 燥熱이 있기 때문에 肺를 상하게 하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17세기 중엽이후에는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점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담배의 형태는 처음에는 파이프담배였으나 18세기 중엽부터는 권련이 제조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량을 보면 1966년도에는 국민 1인당 1,179개피, 18세 이상 인구당은 2,329개피였던 것이 25년이 지난 1991년도에 와서는 국민 1인당 2,272개피, 18세 이상 인구당은 3,297개피로 국민 1인당 증가율은 192%, 18세 이상 인구당 증가율은 141.5%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통계청(1992)은 보고하고 있다.

2. 흡연의 유해론

1962 영국의 Royal Collage of Physicians에서 보고한 바(정규철; 2차인용)에 의하면 흡연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장애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의학 분야의 일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으며 흡연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흡연의 유해론에 대한 그 동안의 많은 선행 연구(김영설의 1인; 1977)에서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도 담배를 많이 태우는 사람은 적게 태우는 사람보다도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흡연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관상심 질환이며 그 다음으로 폐암, 만성 폐색성 폐질환, 후두질환 등을 꼽고 있다.

흡연이 주원인이 되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8세 이상 국민 1인당 담배 소비량(개피)와 비교하여 통계청(1992)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폐암사망률은 1인당 담배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폐암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또한 흡연율이 여자에 비해 높은 남자의 경우는 그 사망율도 2.7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도 이러한 흡연에 대한 신체상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연교실의 운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담배 포장지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 표시등 금연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는 하나의 진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흡연이 인체에 유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흡연을 함으로서 얻게 되는 정서적 평온감 내지는 니코틴 약 중독성 또는 습관성 때문에 금연을 단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흡연자의 사회적 여건, 흡연자의 유형, 흡연의 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흡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치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배 1인당 소비량(18세 이상)과 폐암사망률(10만명당)

담배 : 개피, 사망자 : 명

년도	구분 18세이상 1인당 소비량	폐암사망률		계
		남자	여자	
1981	3,132	10.4%	4.4%	14.8%
1991	3,273	20.8%	7.7%	28.5%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1992)

흡연자의 개개인 별로 금연에 대한 방법이 제시될 수만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사회 중심적, 계도적 지위에서 금연모델을 제시하여 금연운동을 선도적으로 떠나야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식 변화에 계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중산 보수적인 성향을 띤 계층인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흡연 유형과 흡연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일 흡연량별 흡연유형을 파악한다.
2. 금연시도 및 성공여부와 흡연유형을 파악한다.
3. 흡연요인 관련유형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에 소재 하는 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 500명 중 조사에 협조한 170명이었는데, 이들의 직위는 부록1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8급에서 3급에 이르고 있고 연령도 2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5년 1월 10일에서 1월 20일 까지 10일간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체에게 모두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자료는 180부였으며 이중 기재가 미비하여 자료로 처리가 불가능한 10부를 제외한 바 분석 자료는 170부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일반적 사항 19문항, 이외에 “한국 금연 운동협회”에서 사용한 흡연이유에 관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흡연이유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유형을 자극형, 손장난형, 즐거움과 편안함형, 스트레스 해소형, 육체심리적 중독형, 습관성의 6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이들 합계점수는 3점에서 15점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어느 하나의 합계가 11점 이상이 되면 높은 점수로 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test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일일 흡연량별 흡연유형

일일 흡연량별 흡연유형은 <표1-1>에서와 같이 응답자 170명 중 10~20개피가 110명 (6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개피 이하로 32명 (18.8%)이었고 20~30개피가 28(16.5%)로 보통 일일 흡연량은 반갑에서 한갑정도로 나타났는데 박병하(1994)의 연구에 의하면 한갑 미만은 64%, 한갑에 2갑이 34% 2갑 이상은 2%로 나타났으며, 김기순의 3인(199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일일 흡연량은 반갑 미만은 62.1% 반갑이상 한갑 미만은 24.6% 한갑이상 두갑 미만은 12.3% 두갑 이상이 1.0%로 보고되고 있고, 이혜숙의 2인(1989)의 연구에서는 고교생의 12.4% 중학생의 15%가 하루에 16개피 이상의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흡연량과 관계 있는 유형은 자극형, 즐거움과 편안함형, 육체심리적 중독형, 습관성으로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극형에서는 응답자 170명 중 11점 이상이 50명 (29.4%)로, 이 중 20~30개피가 14명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개피가 28명 (25.5%), 10개피 이하에서는 8명 (25.0%)로 일일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의 각성효과에 의해 일시적으

로 창의력을 향상시키거나 진정효과를 나타내 담배를 계속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자극을 대신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 즉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는 빠른 걸음을 걷는다던가 운동을 한다거나 샤워를 하면서 흡연욕구를 잊을 수 있다.

즐거움과 편안함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22명(12.9%)이었고, 이 중 20~30개피가 6명(21.4%), 10~20개피가 14명(12.7%), 10개피 이하가 2명(6.3%) 순으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담배의 니코틴이 근심격경 초조감 등 정서적인 불안감을 덜어주며 담배 피우는 행위 자체가 입으로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먹거나 마시는 즐거움 또는 사회활동 그리고 운동으로 담배의 즐거움을 대신하여 금연을 할 수가 있다.

육체심리적 중독형에서는 11점 이상이 26명(15.3%)이었고 이 중 20~30개피가 10명(35.7%)이고, 10~20개피는 16명(14.5%)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흡연량의 증가는 혈중 니코틴의 축적으로 담배에 중독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금연하기가 제일 어렵다. 담배의 양을 줄이면서 금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딱 끊는 것이 좋다. 습관성에서는 11점 이상이 10명(5.9%)로, 이 중 20~30개피가 4명

(14.3%), 10~20개피가 6명(5.5%)로 육체심리적 중독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니코틴의 중독성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습관성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담배의 양을 줄여가면서 담배를 끊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2. 금연시도 및 성공여부와 흡연유형

응답자 총 170명 중 금연시도를 한 경우가 130명(76.4%)로 금연운동 협회(1991)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흡연인구 중 금연 희망자가 60%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 응답한 금연 희망자가 16.4%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해숙의 2인(1989)에 의하면 1988년 조사에서 중학생의 63.3%가 고교생의 73.8%에서 1989년 중교생의 77.3%가 고교생의 79%가 금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박병하(1994)의 연구에서는 금연하겠다는 28%, 흡연량을 줄여 보겠다는 50.5%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이 차이는 조사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가 갈수록 흡연에 대한 계몽교육과 홍보가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 금연희망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52명(40.0%)이었다.

금연시도 여부와 관련 있는 흡연유형에는 자극형

〈표 1-1〉 일일 흡연량별 흡연유형

흡연유형	일일흡연량합계 합계 점수	10개이하 N (%)	10~20개 N (%)	20~30개 N (%)	계 N (%)	χ^2
	자 극 형	10점↓ 11점↑	24 (75.0) 8 (25.0)	82 (74.5) 28 (25.5)	14 (50.0) 14 (50.0)	
즐 거 음 과 편 안 함 형	10점↓ 11점↑	30 (93.7) 2 (6.3)	96 (87.3) 14 (12.7)	22 (78.6) 64 (21.4)	148 (87.1) 22 (12.9)	13.432**
육 체 · 심 리 적 중 독 형	10점↓ 11점↑	32 (100.0) 0 (0.0)	94 (85.5) 16 (14.5)	18 (64.3) 10 (35.7)	144 (84.7) 26 (15.3)	17.283**
습 관 성	10점↓ 11점↑	32 (100.0) 0 (0.0)	104 (94.5) 6 (5.5)	24 (85.7) 4 (14.3)	160 (94.1) 10 (5.9)	26.574**
계 N (%)		32 (100.0)	110 (100.0)	28 (100.0)	170 (100.0)	

*P<0.05, **P<0.01

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표2-1>에서와 같이 11점 이상이 모두 50명 (29.4%)고, 이들 중 금연시도를 해본 군이 44명 (33.8%), 금연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군이 6명 (15%)로 대체로 금연시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시도를 해본 130명 중 금연에 성공한 경우가 52명 (40.0%), 실패한 경우가 78명 (60.0%)으로 나타났다으며 의미 있는 유형으로는 자극형, 스트레스 해소형, 육체심리적 중독형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극형에서 11점 이상이 모두 44명 (24.4%)이었고, 이 중 8명 (15.4%)만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36명 (46.2%)이 실패했다.

스트레스 해소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84명 (64.6%)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8명 (53.8%)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56명 (72.8%)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

육체심리적 중독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20명 (15.4%), 이 중 2명 (3.8%)만이 금연에 성공했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이미 담배의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3. 흡연요인 관련유형

1) 연령관련유형

연령별 흡연량은 응답자 총 170명 중 40대가 78명 (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가 74명 (43.5%), 50대가 18명 (1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박병하(1944)의 연구에서는 30대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세 이하가 53.6%, 40대가 48.1%, 50세 이상이 39.3%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일(1988)에 의하면 20대가 결핵협회 71.6%, 한국갤럽 78.2%, 30대가 결핵협회 74.0% 한국갤럽이 78.8%, 40대가 결핵협회 71.2%, 한국갤럽 71.7%, 50대가 결핵협회 67.8% 한국갤럽이 68.6%로 세 연구 모두 50세 이상의 흡연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련이 있는 흡연유형으로는 스트레스 해소형, 육체심리적 중독형, 습관성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1>

<표 2-1> 금연 시도 여부와 흡연유형

흡연유형	금연 시도 합계		예 N (%)	아니오 N (%)	계 N (%)	χ ² 값
	점수					
자극형	10점 ↓		86 (66.2)	34 (85.0)	120 (70.6)	7.549*
	11점 ↑		44 (33.8)	6 (15.0)	50 (29.4)	
계 N (%)			130 (100.0)	40 (100.0)	170 (100.0)	

*P<0.05

<표 2-2> 금연 성공 여부와 흡연유형

흡연유형	금연 성공 합계		예 N (%)	아니오 N (%)	계 N (%)	χ ² 값
	여부					
자극형	10점 ↓		44 (84.6)	42 (53.8)	86 (67.7)	13.742**
	11점 ↑		8 (15.4)	36 (46.2)	44 (24.4)	
스트레스 해소형	10점 ↓		24 (46.2)	22 (28.2)	46 (35.4)	9.081**
	11점 ↑		28 (53.8)	56 (72.8)	84 (64.6)	
육체·심리적 중독형	10점 ↓		50 (96.2)	60 (76.9)	110 (84.6)	20.000**
	11점 ↑		2 (3.8)	18 (23.1)	20 (15.4)	
계 N (%)			52 (100.0)	78 (100.0)	130 (100.0)	

*P<0.01

스트레스 해소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110명 (64.7%)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30대가 48명 (64.9%), 40대가 50명 (64.1%), 50대가 12명 (66.7%)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에서는 직장에서는 일의 능률 저하로 받는 스트레스, 가정적으로는 장성한 자녀의 결혼 또는 대학진학 문제, 개인적으로는 퇴직에 대한 대비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흡연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육체심리적 중독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26명 (15.3%)이었으며, 이 중 20~30대가 4명 (5.4%), 40대가 18명 (23.1%), 50대가 4명 (22.2%)으로 대체로 연령이 많은 군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간 흡연을 해왔기 때문에 니코틴에 의해 이미 습관성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다.

습관성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10명 (5.9%)이었으며, 이 중 20~30대가 2명 (2.7%), 40대가 4명 (5.1%), 50대가 4명 (22.2%)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담배를 오래 피워왔으므로 만성흡연으로 볼 수 있으며 만성 흡연자는 이미 담배의 니코틴에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구(1990)에 의하면 성인 흡연자의 2/3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20~30대의 습관성 중독형은 그 시작 연령이 청소년기부터 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 금연 운동 협의회(1992)에 보

고된 중고생의 흡연율은 1988년에 중학생 1.8%, 고교생 23.9%에서 1991년에는 중학생이 3.2% 고교생이 32.4%로 증가하였으며 김기순의 3인(1994) 조선대 학교보건진료소 통계에서는 입학직후 남학생의 흡연율이 27%에서 1학년말에는 50%이상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맹광호외 1인(1993)의 연구에서는 남자의대생의 흡연률이 50.4%로 나타나 청소년 흡연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학교에서의 조기 금연 교육과 지역사회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2) 학력관련 유형

학력과 관련이 있는 흡연 유형으로는 <표3-2>에서와 같이 자극형, 육체 심리적 중독형으로 나타났다.

자극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50명 (29.4%)으로, 고졸이 18명 (30.0%), 전문대졸이 22명 (59.5%), 대졸이상이 10명 (13.7%)으로 전문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대졸 이상은 고졸자보다 정신집약적 노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학력차이의 극복, 승진문제 등으로 전문대졸자는 업무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육체심리적 중독형에서는 11점 이상이 모두 26명 (15.3%)로, 이 중 고졸이 14명 (23.3%), 전문대졸이 2명 (5.4%), 대졸 이상이 10명 (13.7%)으로 나타났다.

<표 3-1> 연령관련 유형

흡연유형	연령 점수	연령			계 N (%)	χ ² 값
		20~30대 N (%)	40대 N (%)	50대 N (%)		
스트레스 해 소 형	10점 ↓	26 (35.1)	28 (35.9)	6 (33.3)	60 (35.3)	13.289*
	11점 ↑	48 (64.9)	50 (64.1)	12 (66.7)	110 (64.7)	
육체·심리적 중 독 형	10점 ↓	70 (94.6)	60 (76.9)	14 (77.8)	144 (84.7)	24.447**
	11점 ↑	4 (5.4)	18 (23.1)	4 (22.2)	26 (15.3)	
습 관 성	10점 ↓	32 (97.3)	74 (94.9)	14 (77.8)	160 (94.1)	19.812**
	11점 ↑	2 (2.7)	4 (5.1)	4 (22.2)	10 (5.9)	
계 N (%)		74(100.0)	78(100.0)	18(100.0)	170(100.0)	

*P<0.05, **P<0.01

〈표 3-2〉 학력관련 유형

흡연유형		학력		고졸 N (%)	전문대졸 N (%)	대학교이상 N (%)	계 N (%)	χ^2 값
		합계 점수						
자극형	10점 ↓			42 (70.0)	15 (40.5)	63 (86.3)	120 (70.6)	26.845**
	11점 ↑			18 (30.0)	22 (59.5)	10 (13.7)	50 (29.4)	
육체·심리적 중독형	10점 ↓			46 (76.7)	35 (94.6)	63 (86.3)	144 (84.7)	17.236**
	11점 ↑			14 (23.3)	2 (5.4)	10 (13.7)	26 (15.3)	
계 N (%)				60 (100.0)	37 (100.0)	73 (100.0)	170 (100.0)	

**P<0.01

3) 근무연한 관련유형

근무기간 별로는 5-10년이 12명 (7.1%), 20년 이상이 56명 (32.9%), 10~20년이 102명 (6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근무기간이 길었으며, 근무기간과 관련이 있는 유형으로는 육체심리적 중독형으로 근무기간 5~10년이 2명 (16.7%), 10~20년이 10명 (9.8%)이었고, 20년 이상이 14명 (2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이 연령대는 발달 과업상 가정과 직장에서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언급되고 있는바(김영입외 2인;1994),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흡연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된다.

4) 주택소유 관련유형

주택소유 여부를 보면 자가 128명 (75.3%)이었고, 전세가 42명 (24.7%)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장기 근속자가 많아 주택소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소유와 관련이 있는 유형으로는 즐거움 편안함형과 스트레스 해소형으로 <표3-4>와 같다.

즐거움 편안함형에서는 11점 이상이 110명 (64.7%)이며, 이 중 자가가 82명 (64.1%), 전세가 28명 (66.7%)으로 전세사는 사람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사는 경우 주인집과의 불화나 잦은 이사 등에서 받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해소형에서는 자가 22명 (17.2%), 전세가 4명 (9.5%)으로 나타났다.

5) 자녀수 관련 유형

자녀수는 2명이 94명 (5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명 이상이 36명 (22.2%), 1명이 32명 (19.8%) 순으로 대체로 자녀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와 관련이 있는 유형으로는 자극형과 즐거움 편안함형이다. <표3-5>

자극형에서는 11점 이상이 46명 (28.4%)이었고, 이 중 자녀 1명인 군이 14명 (43.7%), 2명이 군이 22명 (23.4%), 3명 이상인 군이 10명 (27.8%)으로 자녀 1명을 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3-3〉 근무연한 관련 유형

흡연유형		근무기간			계 N (%)	χ^2 값
		점수	5~10년 N (%)	10~20년 N (%)		
육체·심리적 중독형	10점 ↓		10 (83.3)	92 (90.2)	42 (75.0)	20.650**
	11점 ↑		2 (16.7)	10 (9.8)	14 (25.0)	
계 N (%)			12 (100.0)	102 (100.0)	56 (100.0)	170 (100.0)

**P<0.01

〈표 3-4〉 주택소유 관련 유형

흡연유형	주택소유		자가 N (%)	전세 N (%)	계 N (%)	χ ² 값
	합계 점수					
즐거움· 편안함형	10점 ↓		46 (35.9)	14 (33.3)	60 (35.3)	14.900**
	11점 ↑		82 (64.1)	28 (66.7)	110 (64.7)	
스트레스 해소형	10점 ↓		106 (82.8)	38 (90.5)	144 (84.7)	22.968**
	11점 ↑		22 (17.2)	4 (9.5)	26 (15.3)	
계 N (%)			128(100.0)	42(100.0)	170(100.0)	

**P<0.01

〈표 3-5〉 자녀수 관련 유형

흡연유형	자녀수		1명 N (%)	2명 N (%)	3명 N (%)	계 N (%)	χ ² 값
	합계 점수						
자극형	10점 ↓		18 (56.3)	72 (76.6)	26 (72.2)	116 (71.6)	23.115*
	11점 ↑		14 (43.7)	22 (23.4)	10 (27.8)	46 (28.4)	
즐거움· 편안함형	10점 ↓		30 (93.8)	76 (80.9)	34 (94.4)	140 (86.4)	23.224**
	11점 ↑		2 (6.2)	18 (19.1)	2 (5.6)	22 (13.6)	
계 N (%)			32(100.0)	94(100.0)	36(100.0)	162(100.0)	

**P<0.05

두 부부만의 공동체 생활에서 새로운 자녀의 탄생이나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 등 가족 수입원으로서 주요역할을 인식하게 되므로 직장 내에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즐거움 편안함형에서는 11점 이상이 22명 (13.6%) 이었고, 자녀수 1명인 군이 2명 (6.2%), 2명인 군이 18명 (19.1%), 3명 이상인 군이 2명 (5.6%) 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의 의식변화에 제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중산보수적인 성향을 띤 계층인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흡연유형과 그 관련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막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199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일 흡연량과 관련이 있었던 흡연유형은 자극형이 모두 50명 (29.4%) 이었으며 이 중 20~30개피가 14명 (50.0%) 으로 많았다. 즐거움과 편안함형에는 모두 22명 (12.9%) 이었고 이 중 20~30개피가 6명 (21.4%) 으로 많았다. 육체심리적 중독형은 모두 26명 (15.3%) 이었고 20~30개피가 10명 (35.7%) 으로 많았다. 습관성은 모두 10명 (5.9%) 으로 이 중 20~30개피가 4명 (14.3%) 으로 많았다.

2. 금연시도와 관련이 있었던 유형으로는 자극형으로 모두 50명 (24.9%) 이었고 금연시도를 한군이 44명 (33.8%), 전혀 시행하지 않은 군이 6명 (15.0%) 으로 나타났다. 금연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었던 유형으로는 자극형이 44명 (24.4%) 이었으며 이 중,

8명 (15.4%)만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36명 (46.2%)이 실패하였으며, 스트레스 해소형에서는 모두 84명 (64.6%) 중 금연에 성공한 군이 28명 (53.8%), 실패한 군이 56명 (72.8%)였고, 육체심리적 중독형에는 모두 20명 (15.4%)이 속하였으며 이 중 2명 (3.8%)만이 금연에 성공하고, 18명 (23.1%)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흡연요인 관련 유형

1) 연령별로 관련 있었던 흡연유형은 스트레스 해소형, 육체심리적 중독형, 습관성의 3유형이었다.

2) 학력별로 관련이 있었던 흡연유형은 자극형과 육체심리적 중독형 2유형이었다.

3) 근무연한별로 관련있었던 흡연유형은 육체·심리적 중독형이었다.

4) 주택소유별로 관련있었던 흡연유형은 즐거움, 편안함형과 스트레스 해소형 등 2유형이었다.

5) 자녀수별로 관련 있었던 흡연유형은 자극형과 즐거움·편안함형 2유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흡연유형에 따른 금연교실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관내 금연 규정을 통한 포상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덧붙여 정부차원에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며 담배자판기 설치의 제한이나 광고를 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기순, 김양욱, 박종, 최진수, 일부대학 신입생들의 흡연관련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0(1), 1994
김일순, 담배를 끊으시려는 분들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1991
김영설, 이찬세,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결핵 및 호흡기 질환, 24(3), 1977
김영임, 윤순령, 흥경자, 가족간호학, 한국방송통

신대학출판부, 192-203, 1994

맹광호, 신의철, 1개 의과대학 남학생들의 흡연실태 및 흡연관련 특성 분석, 한국역학회지 15(1), 1993.

박순영, 흡연과 건강, 인간과학 26(6), 1978

서일, 한국인의 흡연율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0(2), 1988

이동구, 청소년은 왜 담배를 피우며 왜 끊지 못하는가? 담배와 건강. 24, 1990.

이해숙, 김일순, 서일, 전국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1988-1989), 한국역학회지, 11(2), 1989

윤세원, 흡연과 인류의 역사, 경희대학교 학생처 1976

정규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양의학 39(5), 1990

최신해, 금연의학, 대한의학협회지, 10(18), 1967

최의순, 박재순, 서울시내 여대생의 흡연실태 조사, 중양의학 38(5), 1980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1992

한국금연운동 협의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작업장에서의 금연, 1992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자의 흡연과 건강, 1994

Charles scott Berry: Effect of Smoking on Add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4, 1917

Fenichel,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es, Norton 1945

Rose, J and Behn, F., The Effect of Smoking-related Sensory Cues on Psychological Stress. Pharmacology, Biochemistry Behavior 39(2) : 265-8, 1991

Causley, H. A, Surgeon General's Report :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g. Nicotine Addiction :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8.

= Abstract =

A Review on Smoking Patterns among Public Officers

Hyun, Kyoung Soon (Kang Buk Sam Sung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moking patterns and their relevant factors of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placed to guide people's way of thinking as conservative middle-income group and thereupon, provide for basic data which can be used to reduce the diseases and death rate caused by smoking in terms of preventive medicine. For this purpose, 170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the government agencies located in Seoul were surveyed for Jan. 10~Jan. 20, 1995.

The results of survey can be analyzed/summarized as follows;

1. In terms of daily smoking frequencies, 50 officials (29.4%) are driven by stress to smoke. Among these officials, 25 ones (50.0%) smoke 20~30 times a day. Meanwhile, 22 officials (12.9%) answered that they smoke for pleasure and comfort, and among them 6 officials (21.4%) smoke 20~30 times a day. 26 officials (15.3%) are found to be nicotine-addicted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and to 10 of them (35.7%) smoke 20~30 times a day. On the other hand, 10 officials (5.9%) have habit of smoking and 4 of them (40.0%) smoke 20~30 times a day.

2. Out of 50 officials (24.9%) who began smoking on impulse, 44 actually stopped smoking, and the rest 6 officials did not even implement their plan.

In view of successful cigarette-stopping, only 8 officials (15.4%) out of 44 impulse-driven smokers succeeded in stopping cigarettes, while the rest 36 failed all. Meanwhile, out of those 84 officials (64.6%) who smoked for reduced stress, 28 ones succeeded, while the rest 56 ones failed. Out of 20 officials who were nicotine-addicted but attempted to stop smoking, only 2 smokers succeeded and the rest 18 were all failures.

3. Factors involving smoking and Their patterns

1) By age group (30's, 40's and 50's), the smoking patterns can be grouped into stress-removing, nicotine-addictive and habitual ones, respectively.

2) By academic background, our officials smoke on impulse or due to nicotine addiction.

3) The length of career is co-related with nicotine addiction.

4) The ownership of house is related with smoking for comfort or less stress.

5) The number of children is related with impulse-driven smoking or smoking for comfort.